

05

과음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행동: 문제해결 상황이론을 중심으로*

•배규원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석사

•성민정**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문제 음주,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주목 받고 있는 과음에 대한 인식이 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1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음에 대한 대학생들의 상황 인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황적 동기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문제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해결 상황적 동기는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정보추구와 정보주목에만 영향을 미쳤다. 과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중을 세분화한 결과, 활동공중과 인지공중의 비중이 높았으며, 활동공중은 모든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혼술 빈도는 공중의 상황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 투 고 일 : 2022년 03월 06일
▶ 심 사 일 : 2022년 08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08월 31일

주제어 : 과음, 금주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행동, 자기효능감, 공중 상황이론, 문제해결 상황이론

*이 논문은 2020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교신저자 (mjsung@cau.ac.kr)

1. 문제 제기 및 연구 배경

보건복지부는 주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해 광고 규제 수준이 낮다는 판단에서 2020년부터 청소년이 볼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게임 등에서 주류 광고를 일부 제한했다(Lee, 2020). 더불어 2021년 7월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주류 광고 금지 대상을 새롭게 정하거나 범위를 확대했는데, 가령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넷 매체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다(Kim, 2021). 절주 캠페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 따라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음주 조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음주 폐해 예방관리사업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으나, 다른 공공캠페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활성화 정도가 높지 않다. 가령 보건복지부의 지출 예산을 살펴보면 금연 정책 예산은 2019년 및 2020년에 각각 1388억, 1055억원이었지만 금주 및 절주 정책 예산은 13억과 14억 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적당한 음주는 기분을 좋게 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행동과 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Noh, Suh & Kim, 1997). 폭음은 성행위, 음주 운전, 폭력, 대인관계 문제 등 각종 문제의 원인이 되며(Wechsler, Davernport, Dowdall, Moykens & Castillo, 1994), 음주가 습관화 될 경우에 중독 증세가 나타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며 보건의료 문제와 사회복지 문제, 사법 문제 등으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Standridge, Zylstra, & Adams,

2004; Standerwick, Davies, Tucker & Sheron, 2007; Elliott & Ainsworth, 2012).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이하 IARC)는 알코올과 그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는 알코올 섭취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므로 음주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다며, 각국 정부에 주류 구매 제한을 촉구하기도 했다(Yoo, 2021).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의하면 고위험 음주를 경험한 비율은 3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대로 나타나 고위험 음주 경향이 높았고, 특히, 20대 중에서도 대학생의 음주율과 음주 관련 문제 발생 비율이 일반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 또한 2019년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대학생의 약 75%가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를 하며, 1회에 10잔 이상으로 개별 음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Ju, Oh, Park, Lee, Yoo & Park, 2019). 이는 일반 성인의 월간 음주율 70%를 상회하는 수치이며, 남학생의 5.4%와 여학생의 4.9%는 중독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국내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연구참여자 58.6%가 문제음주를 보였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잦은 폭음과 강제 음주 등 문제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Moon, Noh, Youn, Kim, Kang & Choo, 2021). 대학생 시기는 장기적인 음주 습관이 형

1) WHO에 따르면 적당한 음주는 하루에 섭취하는 순수 알코올양 기준 성인 남성은 약 소주 4잔에 해당하는 40g, 성인 여성은 20g 미만이며, 고위험 음주는 1회 평균 음주량이 성인 남성은 소주잔 기준 7잔 이상, 성인 여성은 소주잔 기준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것이다.

성되는 시기이자 문제 음주 행동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므로 대학생이 겪는 문제 음주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생들의 폭음 행동은 한 번 음주를 하면 계속해서 마시게 되는 통제력 상실 음주형에 속한다는 점에서(Kho, Hyun & Park, 2009), 음주 통제 측면의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수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높아졌다(KOSIS, 2019). 또한 편의점과 대형 마트 등 주류 유통채널이 다양화되면서 주류에 대한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점도 혼술 확산 이유 중 하나이다. 더불어 COVID-19의 영향으로 혼술이 확산되면서 문제 음주 경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집에서 음주하는 소비자가 증가해, 주류기업 하이트진로의 2020년 총 매출액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전에 비해서 약 124% 증가한 1984억 원을 넘었다(Kim, 2021).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이유와 더불어 사회 혹은 집단 내에서 형성되는 정체성보다 개인의 정체성에 주목하는 사회적 흐름도 혼술 문화의 확산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Jones & McEwen, 2000; Lim, Won & Lee, 2018). 과거 혼술은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인 음주 행동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연구에서는 집단 음주에 비해서 주목 받지 못했다(박여진, 오유

미, 양유선, 2019). 하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문화가 주류로 자리잡게 되면서 혼술 역시 새로운 소비 문화로 정착하게 되었다(Lee, 2017; Lim et al., 2018).

문제는 이처럼 혼술 문화가 확산되면서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과음이나 폭음 등 문제성 음주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혼술은 무분별한 알코올 음용 및 그 후의 음주 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혼술 빈도가 높은 음주군은 문제성 음주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Keough, O'Connor & Stewart, 2018). 즉, 혼술 행위는 집단적 음주에 비해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알코올 의존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혼자 음주하는 상황은 개인의 스트레스, 우울 등 심리적, 정서적 문제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집단적 음주 상황과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Mason, Stevens & Fleming, 2020; Keough et al., 2018). 또한 청소년기에 형성된 잘못된 음주 습관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시기부터 음주 문제에 관한 분석이 필요한 바(정원철, 2006), 본 연구는 근래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혼술 문화에 주목하여 대학생들의 음주 행동 및 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한편,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바탕으로 문제 음주 감소를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절주 캠페인의 목표 공중으로 대학생을 선정하고, 이들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Kim과 Grunig(2011)의 ‘문제해결 상황이론(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 이하 STOPS)'의 틀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STOPS는 공중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문제해결을 위한 개인의 상황적 대응 기제로 규정하고,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의사결정 상황'이 아닌 '문제해결 상황'으로 보는 바(Kim, Park & Kim, 2014), 본 연구는 문제 음주 중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주목 받아온 과음 이슈에 대한 공중의 문제인식과 제약인식, 관여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황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그것이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대학생 음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성별이나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음주 동기와 그에 따른 음주 행동을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과음에 관한 상황 인식과 음주 유형에 따라 공중을 세분화하고 공중 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행동 차이를 탐색함으로써 향후 절주 캠페인 및 제반 커뮤니케이션의 기획과 실행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음주 실태 및 음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제 음주란 음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차원에서 정상적 활동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 행동으로, 사회적

비용과 사망률 증가, 생산성 감소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내포하는 사회적 문제이다(Rehm et al., 1996).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문제 음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위험 음주와 폭음, 알코올사용장애 등을 적용하고 있다(Khealth, 2020). 본 연구는 고위험 음주로 구분되는 과음을 문제 음주로 규정하는데, 과음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원인이 되므로 심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음주를 하는 사람 중 고위험 음주 비율은 57.3%이며, 남성(59.7%)이 여성(5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은 30대(66.3%), 20대(63.5%), 40대(59.4%), 50대(52.6%), 60대(48.5%) 순으로, 20대와 30대의 비율이 높았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7). 특히 20대 중에서도 대학생은 일반 성인에 비해 음주량과 음주 빈도, 연간, 월간 음주율이 모두 높은데(Lee, 2010), 대학생 시기는 음주에 대한 사회적 용인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술에 대한 통제가 없기 때문에 과음과 폭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²⁾ 또한 대학생들은 음주로 인해 건강 문제를 비롯해 성폭행, 기물 파손, 학업 문제 등을 경험하며, 이는 개인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 내 잘못된 음주문화가 정착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Park, 2000; Standerwick, Davies, & Tucker, 2007). 나아가 이 때 형성된 음주 습

2)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음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최초 음주 경험 나이는 평균 19인 고등학교 3학년 시기로 나타났다(Yoon, 2021).

관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Jung, 2006), 대학생 시기부터 해당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문지현 등(Moon et al., 2021)은 대학신입생 시기에 신입생 환영회, MT, 동아리 행사 등을 통해 문제음주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 시기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음주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대학생의 음주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국내의 경우 시기적으로 조금 늦기는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크게 대학생의 음주동기에 관한 연구(Lee, 1993; Jung, 2006; Yang, 2010)와 대학생의 문제성 음주행동에 관한 연구(Lee & Jung, 2012; Jo & Kwon, 2018)로 구분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대학생의 과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와 성별, 학년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이선영과 정의철(Lee & Jung, 2012)은 대학생 집단에서 나타나는 문제성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음주 관여도를 제시했는데, 이들에 따르면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음주 관여도가 문제성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희와 김진희, 황선아(Jeon, Kim & Hwang, 2017)는 학년과 전공, 주거 형태, 동거인 유무, 음주 동기에 따라 음주 문제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와 유사하게 이민규(Lee, 1993)도 개인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영향이 음주 빈도와

음주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서 음주 빈도와 음주 동기에 차이가 있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양 동기, 대처 동기, 사교 동기가 높아(Yang, 2010), 대학생의 음주 문제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사회심리적 요인과 함께 학업 성적, 성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공중 상황이론 (Situational Theory of Publics)

공중은 동일한 이슈에 당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질적인 사람들의 집단으로(Grunig & Hunt, 1984), 그루닉의 공중 상황이론(Situational Theory of Publics: 이하 STP)은 공중이 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Grunig, 1997). 이론에 따르면 공중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상황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STP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공중을 세분화하고 각각의 공중 별로 적합한 PR 전략 및 방식을 도출함으로써 효과성 및 효율성을 배가시킨다(Grunig & Repper, 1992).

상황이론은 세 가지 독립변인(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인식)의 조합을 통해 공중을 세분화하고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정보추구, 정보처리)을 예측한다(Grunig, 1997; Grunig & Hunt, 1984). 먼저, 문제인식은 특정 상황이나 이슈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를 얻으려고 할수록 적극적이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행동이 나타난다(Grunig &

Hunt, 1984). 제약인식은 문제/이슈와 관련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 정도이며, 제약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정보를 탐색하거나 전달된 정보를 처리하는 행동이 소극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제약인식이 낮으면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Grunig, 1997; Grunig & Hunt, 1984). 관여인식은 특정 이슈나 상황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 인식하는 정도인데, 관여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행동이 나타나는 반면, 낮으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동을 보인다(Grunig, 1997; Grunig & Hunt, 1984).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인식은 정보 습득과 관련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정보추구(Information seeking) 행동과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ing) 행동으로 구분된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행동인 정보 추구는 특정 문제나 이슈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으로, 관련자와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이나 유인물, 전문 자료 등 비대중적 매체를 통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 찾기가 그 예이다. Grunig과 Hunt(1984)에 따르면,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는 공중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비해 인지 공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반해 정보 처리는 수동적 커뮤니케이션 행동으로, 소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찾지 않고 대부분 비의도적으로 접했거나 자신에게 제공된 정보를 처리하며, 일상 생활 중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등의 행동이 해당된다

(Kim & Sung, 2011; Grunig, 1982, 1983; Grunig & Hunt, 1984).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문제 인식이 높고 제약 인식이 낮으면 정보 추구하고 정보 처리 행동이 모두 증가하며, 관여 인식은 정보 탐색에는 영향을 주지만 정보 처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또한 문제인식과 관여인식은 높지만 제약인식은 낮은 경우 정보 추구하고 정보 처리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문제인식과 관여인식이 낮고 제약인식이 높으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기보다는 제공된 정보만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Grunig, 1997; Grunig & Hunt, 1984).

공중은 그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라 활동 공중, 인지공중, 잠재공중, 비공중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그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보이므로 공중 별로 차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Grunig, 1997; Grunig & Hunt, 1984). Grunig과 Hunt(1984)에 따르면, 비공중은 문제에 관여되어 있지 않으며 아무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이며, 잠재공중은 조직의 행위로 인한 문제를 당면하고 있으나 그것이 문제임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 인식 정도가 낮고 제약 인식이 높은 집단이다. 인지공중은 조직 행위의 결과가 문제임을 인식하는 사람들로, 이들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인가 하고자 모이는 사람들이 활동적 공중이며,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할 뿐만 아니라 활동가 그룹(activist group)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Grunig, 1989). STP는 이들 공중 별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시하는데, 먼저 정보 탐색과 처리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은 비공중은 조직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PR 프로그램은 시간이나 자원의 낭비에 가깝다(Grunig & Hunt, 1984). 적극적인 정보 탐색을 하지 않지만 중요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정보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경로를 찾아내서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공중들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활동공중들의 경우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다. 대중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PR 활동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에 가깝다(Grunig, 1989; Grunig & Hunt, 1984).

한편, 상황이론의 이론적 발전 과정에서 학자들은 다양한 보완 방향을 제시했는데, Hallahan(2006)은 전략적 공중의 개념과 관련하여 모든 PR 활동이 항상 이슈나 논쟁 상황에서 이루어지거나 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활동공중(inactive publics)이 과소평가되었다고 지적했다. Sha(2006)는 공중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에서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언급하면서 공중 상황이론의 발전 단계에서 누락된 준거지침(referent criterion)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Aldoory와 Sha(2007)는 상황이론의 정보추구 및 정보처리 행동과 관련하여 매체 다변화 및 문화적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소셜미디어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적용을 위한 이론적 틀의 재고가 필요하고 지적하였다.

3) 문제해결 상황이론(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

STP가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얻는 행동으로 규정했다면, 최근 연구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정보나 경험, 의견을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사회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김정남과 동료들(Kim, 2006; Kim, Grunig & Ni, 2010)은 공중들이 문제 상황에 당면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행하는 커뮤니케이션 행동의 목적을 기존의 정보 습득(information acquisition) 중심의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이 아닌 문제해결(problem solving)로 규정하고, 보다 확대된 접근으로서 ‘Communicative Action in Problem Solving (CAPS)’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공중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취하고 생성하는 동시에 선택적으로 정보를 전파하는 사회적 행위자이다(Kim, 2014). 또한 김정남과 그루닉(Kim & Grunig, 2011)은 여기서 나아가 공중의 커뮤니케이션 행동 차원을 보다 정교화한 STOPS를 제시하였다.

STOPS는 STP의 독립 변인 세 가지(문제 인식, 관여도, 제약인식)에 ‘준거지침(referent criterion)’이 추가된 총 네 개의 독립 변인으로 구성되는데, 준거지침이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이나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지식이나 주관적 판단 시스템을 의미한다(Kim & Grunig, 2011). Grunig (1997)에 따르면 준거지침은 개인의 사회적 접촉을 바탕으로 한 이전 상황(antecedent condition)에 따라

결정되는데, 다시 활용될 수 있는 준거지침을 갖고 있다면 당면한 이슈나 문제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후 STP의 발전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준거지침이 STOPS 개발 과정에서 문제 해결 개념의 정교화를 위해 다시 도입되었고, 문제해결을 위한 상황적 동기(situational motiva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되었다(Kim et al., 2014). 문제해결을 위한 상황적 동기는 상황에 따른 인지적 예비 상태의 정도 또는 문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해하고 싶은 정도로, 다양한 문제 해결 커뮤니케이션 행동으로 이어진다(Kim et al., 2010).

STOPS의 종속 변인은 ‘문제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정보 선택(information selection), 정보 전파(information transmission), 정보 습득(information acquisition)의 세 가지 행동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각각 적극적(proactive) 형태와 소극적(reactive) 형태로 나뉘는데, 가령 ‘문제해결을 위해 정보에 대해 선택적으로 접근하거나 거부하는 행동’에 해당하는 정보 선택은 개인의 기준에 따라 선택적 접근 및 선택적 거부에 있어 적극적인 정보 선별(information forefending) 행동과 정보를 별도의 식별 없이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상태인 정보 수용(information permitting) 행동으로 나뉜다. 또한 ‘타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습득한 정보를 설명 및 교육하고자 하는 노력의 정도’에 해당하는 정보 전파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별도의 요청 없이 자발적, 적극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information forwarding) 행위와 누군가가 정보를 요청했을 경우에 정보를 전달하는 소극적

행동인 정보 공유(information sharing)로 구분되고, 정보 습득은 기존과 유사하게 적극적인 정보 추구(information seeking) 행위와 수동적인 정보 주목(information attending)으로 구분된다(Kim et al., 2014; Lee & Rhee, 2020; Kim, 2006; Kim et al., 2012).

이론에 따르면 특정 문제나 이슈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상황에 관한 개인의 인식이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가령 이상연과 이유나(Lee & Rhee, 2020)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에 따른 불매운동 이슈에 대한 공중의 인식과 그것이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불매운동 이슈에 대한 문제인식과 준거지침이 높을수록 문제해결을 위한 상황적 동기가 높았으며, 상황적 동기는 여섯 가지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매운동 이슈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관련된 배경지식과 의지를 가진 공중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참여한다고 할 수 있다. 희귀난치병 어린이에 대한 기부 이슈에 문제해결 상황이론을 접목한 박나림과 성동규(Park & Sung, 2017)는 문제인식과 관여도가 높고 문제해결에 대한 제약인식이 낮을수록 상황적 동기화가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상황적 동기화는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준거지침은 적극적 정보행동인 정보선별과 정보전파, 정보추구 요인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문제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될수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행동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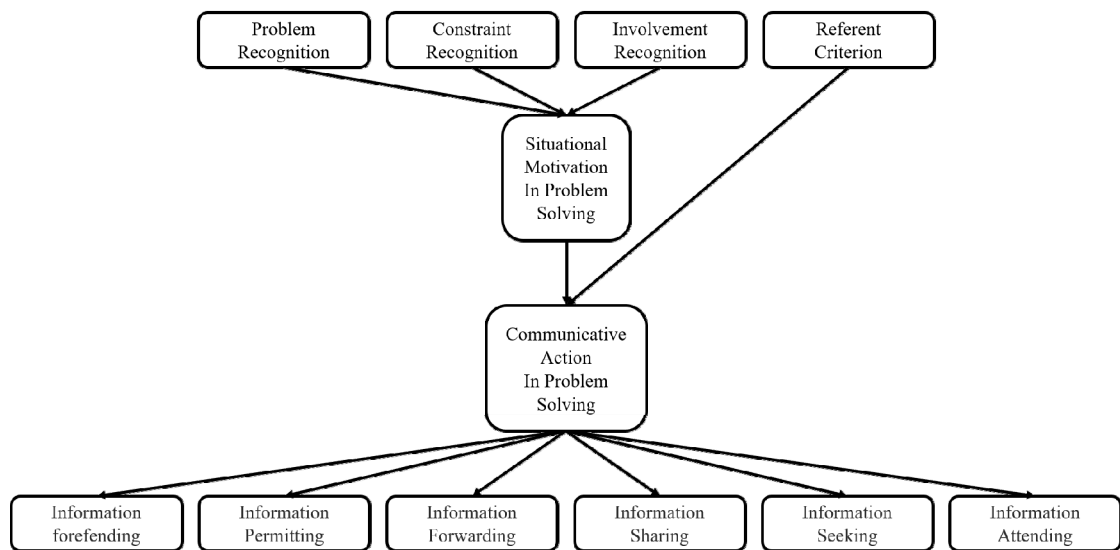
로 해석할 수 있다.

4)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자기 효능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행위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 (Bandura, 1986),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행동패턴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의미한다(Cho, 2000). 음주거부 자기효능감(drinking refusal self-efficacy)은 자기 효능감을 음주 맥락에 적용한 개념으로, 음주 상황에서 개인이 스스로 음주를 거부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Oei, Fergusson & Lee, 1998; Oei & Burrow, 2000; Oei & Morawska, 2004). 음주 통제와 관련된 많은 선행 연구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음주 억제(Drinking restraint)와

더불어 음주 수준 및 음주 행동의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지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Kho et al., 2009), 가령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록 음주 수준이 낮아지며(Oei & Fardim, 2006), 음주 억제와 음주 빈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기도 한다(Kho et al., 2009),

특히 한국은 음주를 권하는 독특한 음주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음주문화 형성을 위해 개인의 적극적인 자기 주장이 필요한데 (Shim, Lee & Sohn, 2009), 개인의 음주 통제 변인 중 하나인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음주 행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 2011). 여러 학자들은 음주 억제에 관한 집착을 줄이고 음주 유혹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음주에 취약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자기 통제 전략을 수립하는 ‘자기효능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가령 Park과 동료들(Park et al., 2009)에 따르면 음주거부



〈Figure 1〉 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

[Provider:article] Download by IP 125.143.159.191 at Thursday, September 29, 2022 2:19 PM

자기효능감은 성별에 관계없이 대학생의 음주 억제와 음주량, 음주 빈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신입생의 문제음주를 탐색한 문지현 등(Moon et al., 2021)도 절주 자기효능감이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문제음주가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충동성과 대학생 문제음주 간의 관계를 살펴본 양승애와 서경현(Yang & Suh, 2017)에 따르면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문제음주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충동통제 곤란과 문제음주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대학생의 문제음주 문제 해결을 위해 음주거부 성공 경험을 높임으로써 음주를 거부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최근 대학가의 음주 문화는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가 음주문화가 점차 변화했는데, 2009년 대학생의 41.8%가 술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답했지만, 2019년에는 57.0%가 술을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답했으며, 대학가 음주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경험하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개인의 음주 습관도 개선되고 있다(Univ Tomorrow Research Laboratory for Twenties, 2019). 그러나 본인의 필요에 의한 음주는 지속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혼술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사회적 음주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절주 캠페인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음주 상황에서 음주거부 자

기효능감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중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인 절주 캠페인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문제해결 상황이론은 특정 이슈에 관한 공중을 분류하고 해당 집단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의 음주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STOPS의 이론적 틀을 대학생 공중의 음주 실태 및 과음 이슈에 대한 인식에 적용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절주 캠페인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20대의 과음 이슈는 주로 대학생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히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탐색이 이루어진 바, 본 연구에서는 과음에 대한 공중의 문제인식과 제약인식, 관여인식이 문제해결 상황적 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행동으로 이어질 것인지 예측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STOPS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과음에 대한 인식에 따라 공중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과음에 대한 인식(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인식)이 문제해결 상황적 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가설 1. 과음에 대한 대학생의 문제인식, 관여도, 제약인식은 문제해결 상황적 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1. 과음에 대한 문제인식은 문제해결 상황적 동기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2. 과음에 대한 제약인식은 문제해결 상황적 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3. 과음에 대한 관여인식은 문제해결 상황적 동기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STOPS에 따르면 당면한 이슈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개인의 상황적 동기는 그 문제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STOPS의 이론적 틀을 차용하여 가설 2를 도출하였다.

- 가설 2. 과음에 대한 공중의 문제해결 상황적 동기는 문제해결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1. 과음에 대한 상황적 동기는 정보선별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2. 과음에 대한 상황적 동기는 정보수용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3. 과음에 대한 상황적 동기는 정보전달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4. 과음에 대한 상황적 동기는 정보공유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5. 과음에 대한 상황적 동기는 정보추구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6. 과음에 대한 상황적 동기는 정보주목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제해결 상황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준거지침과 문제해결 상황적 동기는 공중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Rhee, 2020; Shen, Xu, & Wang,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 받고 있는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을 공중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준거지침으로 하여 그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중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가설 3을 도출하였다.

- 가설 3. 공중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1. 공중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정보선별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2. 공중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정보수용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3. 공중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정보전달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4. 공중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정보공유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5. 공중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정보추구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6. 공중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정보주목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은 STOPS 모형의 이론적 틀을 준용하되 일부 선행연구를 토대로 일부 모형을 수정하였다. 특히 문제해결 상황적 동기와 커뮤니케이션 행동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의 모형을 참고하여 개별 커뮤니케이션 행동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Lee & Rhee, 2020). 준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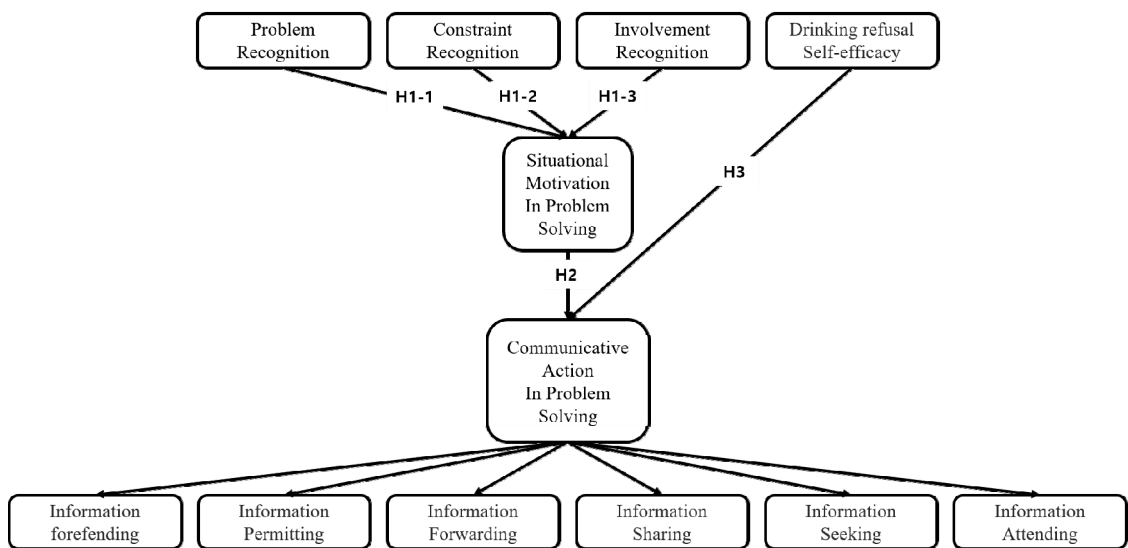
[Provider:article] Download by IP 125.143.159.191 at Thursday, September 29, 2022 2:19 PM

침은 개인이 문제 상황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이나 정보 혹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인식하는 의사결정의 틀이나 방향성을 내포한다(Kim et al., 2014). 가령 정원준과 최준혁(Chung & Choi, 2015)은 세월호 이슈가 공중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제인식과 제약인식, 관여도 외에 ‘감정’ 요인을 준거지침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국가 재난 발생 시 공중은 감정적 표현을 하게 되고 감정은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음주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으로 심리학과 간호학 등 관련 학문에서 활발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과음을 예방하고 음주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ei & Fardim, 2006; Kho et al., 2009, Moon et al., 2021). 이에 대학생 개인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과음에 대한 의사

결정의 틀로서 관련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모든 가설을 종합한 연구 모형은 <Figure 2>와 같다.

이와 더불어 과음에 대한 공중의 유형을 STP에 기반하여 세분화하고 각 유형 별로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으며, 대학생 음주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참고하여 문제 음주에 대한 공중의 문제인식과 제약인식, 관여도 뿐만 아니라 음주량과 음주 빈도에 따른 실질적인 음주 유형에 따른 차이도 함께 살펴보기 위해 아래 두 개의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과음 이슈에 대한 공중 유형(활동, 인지, 잠재, 비공중)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Figure 2> Conceptual Model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음주 유형(고위험 음주/저위험 음주)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끝으로,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된 혼술 문화의 영향, 특히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2020년 이전)과 이후(2020년 이후)의 음주 형태 변화가 공중의 음주 관련 상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3. 대학생 공중의 혼술 경험은 과음에 관한 문제인식과 제약인식, 관여도,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4.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문제해결 상황이론을 중심으로 과음에 대한 대학생 공중의 상황 인식 및 그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분석하며, 그 과정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 동기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독립 변인은 문제인식과 제약인식, 관여도,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으로, 매개 변인은 문제해결 상황적 동기로 설정하였다. 측정 항목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해 측정하였다. 공중 유형의 세분화는 Grunig(1997)의 이론에 근거하여 Kim(2011)이 제안한 상황이론 세분화 기준을 따랐다.³⁾

과음 및 고위험군 음주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적용하여, 과음은 순수 알코올 섭취량 기준으로 남성은 약 소주 4잔, 여성은 약 소주 2잔으로, 고위험 음주는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은 소주잔 기준 7잔 이상, 여성은 소주잔 기준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전과 이후 한 달 평균 음주 빈도를 측정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으로,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2곳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을 위해서 재학생 및 졸업생이 학생증, 각종 증명서 인증 후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대학생 및 취업생 대상 대외활동 커뮤니티 '링크인'에 설문조사 안내 게시물을 업로드하였다. 설문은 2021년 12월에 진행되었고, 총 121명의 참여자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2명을 제외한 119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 진행에 앞서 연구 목적과 내용, 방법,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설문 참여자 일부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3) 측정 항목

문제인식은 문제 음주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

3) 절차에 따르면, 문제인식과 제약인식, 관여도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기준점보다 높으면 1점, 낮은 점수면 0점으로 리코딩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세 가지 독립변인의 값을 모두 더하여 0점은 비공중, 1점은 잠재공중, 2점은 인지공중, 3점은 활동공중으로 분류된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로 규정하였으며, Kim, Ni, Kim과 Kim(2012)의 선행연구를 참고해 총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제약 인식은 문제 음주 해결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제한하는 상황적 요인들에 대한 인식으로, 역시 Kim 등(2012)의 문항을 참고해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관여인식은 대학생들이 음주 문제가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이며,

Kim 등(2012)의 연구를 참고해 3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준거지침으로 제시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압력과 일상적인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를 거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Oei과 Hasking, Young(2005)이 개발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문항(DRSEQ-R)을 국문으로 번역한 임화연 등(Lim et al., 2018)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

<Table 1> Measurement Items

Variables	Item
Problem Recognition	I think the issue is a serious social and national problem.
	I am concerned about the health of the people due to the issue.
	Government and related institutes should take this problem more seriously and take actions.
Constraint Recognition	I feel that my ideas or opinions on this issue matter to those who are addressing it in government or corporation.(R)
	I have much constraint on this issue, which is only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or politicians. (R)
	I feel that my opinion will be reflected in making policy and regulation on this problem. (R)
Involvement Recognition	I see a close connection between myself and this problem.
	This problem affects someone close to me at some point.
	This problem affects me at some point.
Situational Motivation in Problem Solving	I am curious about this problem. I have many thoughts on this problem in my daily life.
	I would like to better understand this problem.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I believe I can refuse to drink alcohol when others recommend it.
	I believe I can refuse to drink alcohol When my spouse or partner is drinking.
	I believe I can refuse to drink alcohol When my friends are drinking
	I believe I can refuse to drink alcohol when I'm alone at home.
	I believe I can refuse to drink alcohol when I'm alone in a restaurant.
Information Seeking	I search online resources to find useful information about the problem.
	I regularly check to see if there is any new information about this problem on the Internet.
	I regularly visit websites related to the problem.
Information Attending	I may take some time to listen if someone tries to give information about this problem.
	I pay attention to the problem when i search the internet
	I attend to news on the newspapers when they cover this problem.
Information Forwarding	I frequently express my opinions confidently about what should be done to deal with this problem.
	I make sure that my friends know about this problem.
Information Sharing	I exchange opinions on the problem with others.
	I talk about this problem only when others bring the topic.
Information Forefending	I would be willing to talk to someone about this problem if they asked me.
	I easily judge the value of information.
	I invested enough time and energy so that I understand this problem.
Information Permitting	For this problem, I welcome any information regardless of where it comes from.
	At times, I find that I have accepted conflicting information about this problem.
	I am interested in all viewpoints on this problem.

했다. 문제해결 상황적 동기는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한 동기의 정도로 규정하였으며, Kim 등(2012)의 문항을 참고해 2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커뮤니케이션 행동도 Kim 등(2012)을 참고하여 변인 별로 각각 2-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Table 1).

음주 행동은 술을 마시는 빈도와 술을 마시는 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난 한 달간의 음주량(‘평소 술을 마실 때 대략 몇 잔 정도 마십니까?’)과 음주 빈도(‘최근 한 달 동안 술을 몇 번이나 마셨습니까?’)를 측정하였다(Shim et al., 2009). 또한 음주 빈도는 (이혜규, 2017) 1달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1회 이상 음주하는 유형(4회 이상)과 1회 미만(1회 이상 4회

미만)으로 음주하는 유형, 비음주 유형(1회 미만)으로 구분하였다. 끝으로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별과 연령, 학년, 입학년도를 측정하였다.

5.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유효 표본은 총 119명이며,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56명(45.4%), 여성 65명(53.6%)이었다. 연령은 23세 23명(22.7%), 22세 22명(18.5%), 26세 16명(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

〈Table 2〉 Respondents Distribution by Gender and Age

		Frequency	%
Gender	Male	54	45.4
	Female	65	53.6
	Total	119	100.0
Age	20	9	7.6
	21	6	5.1
	22	22	18.5
	23	27	22.7
	24	15	12.6
	25	10	8.4
	26	16	13.4
	27	6	5.0
	28	4	3.4
	29	4	3.4
	Total	119	100.0
Year/Status	Freshman	21	17.6
	Sophomore	30	25.2
	Junior	26	21.8
	Senior	26	21.8
	Graduate	5	4.2
	Graduate Student	11	9.2
	Total	119	100.0
Admission Year	Before 2020	94	79.0
	After 2020	25	21.0
	Total	119	100.0

고, 학년은 1학년 21명(17.6%), 2학년 30명(25.2%), 3학년 26명(21.8%), 4학년 26명(21.8%), 수료생 5명(4.2%) 및 대학원생 11명(9.2%)이었다. 입학 시기는 본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

된 2020년을 기준으로 2020년 이전이 94명 (79.0%), 2020년 이후가 25명(21.0%)으로 나타났다 <Table 2>.

연구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 문항들의

<Table 3>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Variable	M	SD	Cronbach's α
Problem Recognition	5.09	1.344	.819
Constraint Recognition	3.91	1.619	.725
Involvement Recognition	4.67	1.724	.799
Situational Motivation in Problem Solving	5.12	.907	.686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4.49	1.124	.720
Information Seeking	2.45	1.565	.897
Information Attending	4.38	1.519	.756
Information Forwarding	3.85	1.886	.900
Information Sharing	4.87	1.440	.862
Information Forefending	3.95	1.440	.694
Information Permitting	4.36	1.471	.848

<Table 4> Correlation Matrices

	Problem Recognition	Involvement Recognition	Constraint Recognition	Situational Motivation in Problem Solving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Information Seeking	Information Attending	Information Forwarding	Information Sharing	Information Forefending	Information Permitting
Problem Recognition	1										
Involvement Recognition	.334**	1									
Constraint Recognition	-.317**	-.143	1								
Situational Motivation in Problem Solving	.631**	.409**	-.299**	1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282**	-.010	-.282**	.052	1						
Information Seeking	.270**	.597**	-.348**	.315**	.263**	1					
Information Attending	.394**	.499**	-.380**	.365**	.036	.560**	1				
Information Forwarding	.499**	.505**	-.516**	.362**	.253**	.504**	.631**	1			
Information Sharing	.448**	.353**	-.430**	.429**	.085	.286**	.681**	.571**	1		
Information Forefending	.447**	.484**	-.369**	.367**	.277**	.537**	.483**	.634**	.627**	1	
Information Permitting	.576**	.510**	-.440**	.505**	.103	.502**	.679**	.754**	.708**	.720**	1

** $p < 0,01$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기술통계와 내적 일관성을 살펴보는 신뢰도(Cronbach's α) 분석을 실시했다.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0.6 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0.7 이상이면 바람직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측정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와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

요인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진행한 결과, 제약인식과 관여도,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 상관계수가 $-.143, -.010$ 으로 유의수준 $.01$ 을 벗어났고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 정보주목, 정보공유의 상관계수가 $.036, .085$ 로 유의수준 $.01$ 을 벗어났다. 이외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4>.

2)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과음에 대한 공중의 문제 음주에 대한 상황적 인식과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 상황적 동기 및 그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각각의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먼저 <연구가설 1>에 대한 분석 결과, 문제인식과 제약인식, 관여인식

과 문제해결 상황적 동기의 다중 상관계수는 $.672$ 로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정계수 R^2 은 $.452$ 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가 문제해결 상황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 45%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에 따르면, 과음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고($\beta = .526, p < 0.01$), 관여인식이 높을수록($\beta = .219, p < 0.01$) 문제해결을 위한 상황적 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1-1과 1-3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제약인식($\beta = -.100, p > 0.1$)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1-2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은 부분 지지되었다 <Table 5>.

다음으로 공중의 문제해결 상황적 동기가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단순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문제해결 상황적 동기는 문제해결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구체적으로는 과음에 대한 문제해결 상황적 동기가 높을수록 정보를 수용하고자 하였고 ($\beta = .505, p < 0.01$),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향도 높게 나타났다 ($\beta = .429, p < 0.01$). 또한 정보선별($\beta = .367,$

<Table 5> Effects on Situational Motivation in Problem Solving

	Situational Motivation in Problem Solving		
	b	β	t
Problem Recognition	.355	.526	6.875**
Constraint Recognition	-.056	-.100	-1.378
Involvement Recognition	.115	.219	2.989**
Constant	2.998		8.362**
R^2		.452	
F		31.584**	

** $p < 0.01$

(Table 6) Effects of Situational Motivation in Problem Solving on Communication Behavior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R ²	b	β	F	t
Situational Motivation in Problem Solving	Information Seeking	.099	.543	.315	12.88**	3.59**
	Information Attending	.133	.611	.144	17.93**	4.235**
	Information Forwarding	.131	.753	.362	17.66**	4.202**
	Information Sharing	.184	.682	.429	26.41**	5.140**
	Information Forefending	.135	.583	.367	18.24**	4.272**
	Information Permitting	.255	.819	.505	40.10**	6.333**

***p* < 0.01

(Table 7) Effects of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on Communication Behavior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R ²	b	β	F	t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Information Seeking	.069	.366	.263	8.706**	2.951**
	Information Attending	.001	.049	.036	.154	.393
	Information Forwarding	.064	.425	.253	8.029**	2.834 **
	Information Sharing	.007	.109	.085	.849	.922
	Information Forefending	.077	.354	.277	9.699**	3.114**
	Information Permitting	.011	.134	.103	1.250	1.118

***p* < 0.01

p < 0.01), 정보전달($\beta = .362, p < 0.01$), 정보추구($\beta = .315, p < 0.01$), 정보주목($\beta = .144, p < 0.01$) 순으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연구가설 2는 지지되었다.

공중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 회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보다 구체적으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정보를 개인의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정보선별이 높아지고($\beta = .277, p < 0.01$), 그 다음으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추구($\beta = .263, p < 0.01$)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정보전달($\beta = .253, p < 0.01$)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주목($\beta = .036, p > 0.01$)과 정보공유($\beta = .085, p > 0.01$), 정보수

용($\beta = .103, p > 0.01$)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 <연구가설 3-1>과 <연구가설 3-3>과 <연구가설 3-5>는 지지되었고 <연구가설 3-2>과 <연구가설 3-4>과 <연구가설 3-6>은 기각되었다.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과음에 대한 공중 세분화를 위해 Kim(2011)의 세분화 절차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과음 문제에 대한 활동공중은 25명(21.0%)이었고 인지공중은 35명(29.4%), 잠재공중은 39명(32.8%), 비공중은 20명(16.8%)로 나타났다 <Table 8>. 공중 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네 가지 공중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중의 유형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Table 8) Frequency by Public Segment

Public Segment	Frequency	%
Active Public	25	21.0
Aware Public	35	29.4
Latent Public	39	32.8
Nonpublic	20	16.8
Total	119	100.0

(Table 9) Tukey HSD Test Result—Multiple Comparisons

	Nonpublic (a) (n=25)	Latent Public (b) (n=35)	Aware Public (c) (n=39)	Active Public (d) (n=20)	F	p
Information Seeking	2.96(1.50) c,d)a	2.48(1.26)	3.48(1.22) c)a	4.46(.84) d)a,b	14.28**	.000
Information Attending	2.81(1.26) b,c,d)a	4.14(1.37) b)a,d)b	4.91(.96) c)a	5.60(.84) d)a,b	26.40**	.000
Information Forwarding	2.16(1.35) b,c,d)a	3.12(1.54) b)a, d)b	3.62(1.57) c)a	4.62(.89) d)a,b	30.29**	.000
Information Sharing	3.63(1.88) b,c,d)a	4.97(1.42) b)a	5.21(1.17) c)a	5.60(.94) d)a	10.70**	.000
Information Foretelling	1.33(.55) b,c,d)a	1.65(.68) b)a, d)b	3.05(1.65) c)a	4.10(1.44) d)a,b	28.03**	.000
Information Permitting	3.09(1.30) c,d)a	4.22(1.48) d)b	4.72(1.19) c)a	5.56(1.17) d)a,b	14.64**	.000

$\alpha < 0.01$ **

공중 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행동 차이 유무 및 그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분석(Tukey)을 실시한 결과, 문제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행동은 여섯 가지 유형에서 모두 활동공중, 인지공중, 잠재공중, 비공중의 순서로 활동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활동공중은 모든 커뮤니케이션 행동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활동성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 선별 행동에 있어서는 활동공중은 잠재공중 및 비공중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활동성을 보였으며, 인지공중 역시 비공중 대비 높은 활동성을 보였다. 그러나 비공중과 잠재공중, 잠재공중과 인지공중, 그리고 인지공중과 활동공중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보 수용과 정보 전달, 정보 추구

행동은 공중 별로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 정보 선별 행동과 마찬가지로 활동공중의 활동성이 잠재공중 및 비공중 대비 월등히 높았으며, 인지공중도 비공중 대비 높은 활동성을 보였으며, 나아가 잠재공중 역시 비공중 대비 높은 활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활동공중은 거의 모든 행동 유형에 있어서 비공중이나 잠재공중에 비해 높은 활동성을 보였으며, 인지공중 역시 모든 행동 측면에서 비공중 대비 활동성이 높아, 이 두 가지 유형의 공중과 비공중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은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 세 가지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있어서 활동공중은 평균 5.5를 상회하는 매우 높은 활동성을 보였다. 반면 잠재공중과 인지공중, 인지공중과 활동공중 간에는 모든 행동 유

[Provider:earthline] Download by IP 125.143.159.191 at Thursday, September 29, 2022 2:19 PM

형에 있어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추구는 다른 커뮤니케이션 행동 유형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가장 활동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중 유형 간 차이의 패턴은 다른 행동 유형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음주 유형에 따라 공중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행동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고위험 음주군에 속하는 응답자는 80명(67.2%), 저위험 음주군은 39명(37.8%)으로 나타났다. 성별

에 따라서 구분했을 때, 고위험 음주군 중 여성은 45명(37.8%), 남성은 35명(39.4%)으로, 저위험 음주군 중 남성은 19명(16.0%), 여성은 20명(16.8%)이었다<Table 10>. 음주 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비교하였을 때, 정보선별을 제외한 정보수용, 정보전달, 정보공유, 정보추구, 정보주목에서는 저위험 음주 유형이 고위험 음주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 결과 음주 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행동 여섯 가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Table 11>.

<Table 10> Problematic Drinking Experience within One Month

	Male	Female	Total
High-Risk Drinking	35(64.8%)	45(53.8%)	80(67.2%)
Low-Risk Drinking	19(35.2%)	20(46.2%)	39(37.8%)
T	54(100.0%)	65(100.0%)	119(100.0%)

<Table 11> Communication Behaviors by Drinking Type

		Type of Drinking	N	M(SD)	t(p)
Communication Behavior	Information Seeking	High-Risk Drinking	80	4.10(1.39)	1.550(.124)
		Low-Risk Drinking	39	3.66(1.51)	
	Information Attending	High-Risk Drinking	80	4.38(1.42)	.277 (.783)
		Low-Risk Drinking	39	4.30(1.55)	
	Information Forwarding	High-Risk Drinking	80	3.85(1.86)	-.059 (.953)
		Low-Risk Drinking	39	3.87(1.95)	
	Information Sharing	High-Risk Drinking	80	4.86(1.47)	-.154(.878)
		Low-Risk Drinking	39	4.90(1.38)	
	Information Forefending	High-Risk Drinking	80	2.57(1.61)	1.11(.268)
		Low-Risk Drinking	39	2.23(1.46)	
	Information Permitting	High-Risk Drinking	80	4.35(1.45)	-.317(.752)
		Low-Risk Drinking	39	4.44(1.66)	

<Table 12> Drinking Frequency Before and After Social Distancing

	Before Social Distancing	After Social Distancing
None	12(10.1%)	5(4.2%)
1 - 7 times	74(62.2%)	94(79.0%)
More than 7 times	33(27.7%)	20(16.8%)
Total	119(100.0%)	119(100.0%)

<Table 13> Drinking Alone Frequency Before and After Social Distancing

	Before Social Distancing	After Social Distancing
None	92(77.3%)	81(68.1%)
1 - 3 times	25(21.0 %)	34(28.5%)
More than 3 times	2(1.7%)	4(3.4%)
Total	119(100.0%)	119(100.0%)

<Table 14> Effects of Drinking Alone Frequency on Problem Recognition, Constraint Recognition, Involvement Recognition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R ²	b	β	F	t
Frequency of Drinking Alone	Problem Recognition	.006	-.081	-.076	.688	-.829
	Constraint Recognition	.000	-.024	-.019	.041	-.203
	Involvement Recognition	.024	.212	.156	2.914	1.707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068	-.232	-.262	8.593**	-2.931**

**p < 0,01

끝으로,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혼술 상황이 대학생 공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전과 시행 이후 한 달 평균 음주 빈도와 혼술 빈도를 알아보았다<Table 12>.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의 경우 전체 음주 빈도가 1회 미만이 12명(10.1%), 1회 이상 8회 미만이 74명(62.2%), 8회 이상이 33명(27.7%)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음주빈도의 경우, 1회 미만 5명(4.2%), 1회 이상 8회 미만 94명(79.0%), 8회 이상 20명(16.8%)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과 이후의 혼술 빈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에 월 1회 미만으로 혼술을 경험한 공중은 92명(77.3%), 1회 이상 4회 미만 25명(21.0%), 4회 이상 음주한 공중은 2명(1.7%)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음주 빈도를 살펴보면, 1회 미만은 81명(68.1%), 1회 이상 8회 미만이 34명(28.5%), 4회 이상이 4명(3.4%)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1회 이상 혼술을 경험한 사람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Table 13>.

혼술 빈도에 따라서 과음에 대한 상황 인식과 준거지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혼술 빈도는 공중의 상황 인식인 문제인식($\beta = -.076, p > 0.1$)과 제약인식($\beta = -.019, p > .01$), 관여도($\beta = .156, p > .01$)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음주거부 자기효능감($\beta = -.262, p < 0.01$)은 혼술 빈도에 부(-)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혼술 빈도가 높을수록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6.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과음 문제에 대

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들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절주 캠페인 및 제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과음에 대한 응답자들의 상황 인식이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공중 유형을 구분한 후 그 유형 간에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트렌드로 자리잡은 '혼술 문화'에 주목하여, 이러한 문화가 대학생들의 음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들은 과음 이슈와 관련하여 문제 인식, 제약인식, 관여인식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공중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유형 별로 커뮤니케이션 행위에도 차이가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공중은 대체로 과음 이슈에 대한 문제 인식이 높았으며, 해당 이슈에 대해서 자신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지한 반면, 제약인식 수준은 다소 높아 자신의 노력이 과음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수준은 중간값을 상회하여, 스스로 음주를 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상황적 동기 수준은 높은 편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과음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음에 관한 공중의 상황 인식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황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과음에 대한 문제인식과 관여도는 문제해결 상황적 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제인식의 영향력이 높

았으나, 제약인식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과음을 문제로 인식하고 그 문제가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고 인식할수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비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과음에 대한 높은 문제해결 상황적 동기는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상황적 동기가 높게 나타날수록 적극적 커뮤니케이션 행동(정보선별, 정보전달, 정보추구)과 수동적 커뮤니케이션 행동(정보수용, 정보공유, 정보주목)이 모두 높았다. 이는 문제인식과 관여인식이 높은 공중일수록 적극적인 정보추구 행동을 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Atwood & Major, 1991; Grunig, 1978, 1982; Major, 1993). 또한 문제 인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관여인식이 그 다음으로 나타난 것은 문제인식이 적극적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메이저 (Major, 1993)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다.

준거지침으로 제시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 상황적 동기가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문제해결 상황적 동기는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지만,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쳐, 정보추구와 정보전달, 정보선별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행동 유형은 Kim과 Grunig(2006)이 제시한 여섯 가지 커뮤니케이션 행동 유형 중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수용하고 공유하고 전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음에 관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공중 세분화를 진행한 결과, 활동 공중과 인지 공중의 비중이 잠재 공중 및 비공중과 비슷해, 참여자들은 문제 음주에 대해 문제인식과 관여인식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문제인식과 관여도가 높은 음주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음주자 본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Yang, 2010) 과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공중 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행동 분석 결과, 모든 정보 행동에서 활동공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지공중, 잠재공중, 비공중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동공중은 정보수용과 정보주목, 정보공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위 세 가지 커뮤니케이션 행동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속하는 요인으로 활동공중은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활동보다 정보를 습득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있어서 활동공중과 인지공중은 비공중 대비 월등히 높은 활동성을 보여,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주량과 음주 빈도에 따른 음주 유형을 구분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고위험 음주군/저위험 음주군의 음주 유형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앞선 공중 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행동 차이와는 다른 양상으로, 절주 관련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음주량과 음주빈도에 따른

공중의 구분보다는 이슈에 대한 상황 인식을 기반으로 공중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혼술 문화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COVID-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전후를 비교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전에 비해서 시행 이후 전체 음주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이후 한달 동안 혼술을 경험한 응답자가 증가했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혼술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강인한, 2021). 혼술 빈도가 공중의 문제인식과 제약인식, 관여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혼술 빈도가 낮을수록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과음 문제와 관련하여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들과 유사하게 문제인식과 관여인식은 문제해결 상황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또한 커뮤니케이션 행동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인식과 관여인식이 높은 활동적 공중일 경우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한다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며(Grunig, 1997), 나아가 사회적인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행동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반면, 제약인식이 높을수록 커뮤니케이션 행동은 감소한다는 일반적인 가정과 달리 문제음주 이슈와 관련하여 제약인식은 공중의 문제해결 상황인식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해, 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문제음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공중의 문제인식과 관여인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Kim(2011)이 제시한 공중 세분화에 따라서 과음에 대한 대학생 공중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행동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네 가지 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든 커뮤니케이션 행동에서 활동공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지공중, 잠재공중, 비공중 순이었으며, 이는 문제인식과 관여도가 높고 제약인식이 낮은 공중일수록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행동이 나타난다는 초기 공중 상황이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과음 문제에 대한 공중의 유형을 세분화함으로써 비교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고 관여도가 높은 활동공중과 인지공중을 대상으로 절주 커뮤니케이션을 구상해야 한다. 이들 공중은 과음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행동을 보이고 나아가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활동공중은 모든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다른 공중 대비 월등히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상연, 이유나(Lee & Rhee, 2009)가 제시한 것처럼 이러한 공중은 해당 이슈에 대해 ‘호의적인 활동 공중’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들을 문제음주 이슈의 옹호자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을 위해서는 단순히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 확산 이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그들 스스로 찾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와 수단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대라는 이들 대학생 공중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의 적극적 정보 수집과 탐색, 전달이 일어나는 플랫폼이나 미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절주 캠페인 기획이 필요하다.

셋째, 다수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문제성 음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었는데(예: Kho et al., 2009; Moon et al., 2021), 본 연구에서도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얻기 위해 계획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인 정보추구와 우연히 정보를 접하게 되었을 경우에서 수용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정보주목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낸 바, 초기 상황이론에서 제시한 커뮤니케이션 행동에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고위험 음주군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사한 선행연구 대비 높은 것이다. 또한 고위험 음주군은 남성 23%, 여성 40%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 대비 높게 나타나,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여성의 음주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대학생의 음주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여러 연구들의 지적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박경, 최순희, 2015). 그러나 음주 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행동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만큼, 절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음주빈도와 음주량을 기준으로 단순히 그 대상을 정하는 것보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과음에 대한 상황적 인식을 기반으로 그 대상과

메시지를 세분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2곳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국내 모든 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응답자의 학년과 전공 등의 다양성을 확보한 바, 어느 정도 보편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참여자 표집 및 집단 간 비교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생의 과음에 대한 상황적 인식에 기반하여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예측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도출 및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향후 대학생의 음주문제를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준거지침으로 본 연구에서 다룬 음주 거부 자기효능감 이외에도 문제성 음주 경험, 음주 동기 등 음주 행동을 예방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COVID-19로 상당 기간 비대면 형식으로 강의가 진행된 시점에 진행되어 통상적인 대학생들의 음주 행위가 제한된 측면이 있다. 그것이 혼술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특성으로 발현되기도 하였으나, 응답자들의 음주량이나 행태에 있어서 기존 조사 결과와의 괴리가 일부 있을 수 있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twood, L. E., & Major, A. M. (1991). Applying situational communication theory to an international political problem: Two stories. *Journalism Quarterly*, 68, 200–210.
- Bandura, 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359–373.
- Chung, W., & Choi, J. (2015). Understanding the roles of problem solving motives and informative communication actions in online megaphoning behavior: An application of the 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STOPS) using the case of Sewol Ferry tragedy.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7(3), 138–168.
- Cox, W., & Klinger, E. (1988).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2), 168–180.
- Elliott, M., & Ainsworth, K. (2012). Predicting university undergraduates' binge-drinking behavior: A comparative test of the one- and two-component theories of planned behavior. *Addictive Behaviors*, 37, 92–101.
- Grunig, J. E. (1978). Defining publics in public relations: The case of a suburban hospital. *Journalism Quarterly*, 55, 109–118.
- Grunig, J. E. (1982). The message-attitude-behavior relationship: Communication behavior of organizations. *Communication Research*, 9(2), 163–200.
- Grunig, J. E. (1997). A situational theory of publics: Conceptual history, recent challenges and new research. *Public Relations Research: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3, 48.
- Grunig, J. E., & Hunt, T. (1984). *Managing public relations*.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 Grunig, J. E., & Repper, F. C. (1992). Strategic management, publics, and issues. *Excellence in Public Relations and Communication Management*, 73(1), 117–157.
- Hallahan, K. (2006). Integrated communication: Implications for public relations beyond excellence. In E. L. Toth (Ed.), *The future of excellence in public relations and communication management* (pp. 299–336). Mahwah, NJ.
- Jeon, J., Kim, J., & Hwang, S. (2017). Relationship between human relationship types, drinking attitudes and problem drinking in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 545–556.
- Jeong, W. (2006).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impact of psychosocial factors on problem drinking among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8(1), 347–371.
- Jo, N., & Wong, G. (2018). Influencing factors on problem drinking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college students in Daegu · Gyeongbuk provinc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2), 11–18.
- Jones, S. R., & McEwen, M. K. (2000). A conceptual model of multiple dimensions of identity.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1(4), 405–414.
- Ju, Y., Oh, S., Park, S., Lee, H., Yoo, M., & Park, E. (2019). College alcohol study for alcohol-related behaviors and problems.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9(1), 58–67.
- Keough, M. T., O'Connor, R. M., & Stewart, S. H. (2018). Solitary drinking is associated with specific alcohol problems in emerging adults. *Addictive Behaviors*, 76, 285–290.
- Kho, Y., Hyun, M., & Park, J. (2009). The mediating effect of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restraint and drinking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The*

-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4), 891-909.
- Kim, J. (2021, February 10). Hite-Jinro's operating profit hikes 124% last year. *Maeil Business Newspaper*.
- Kim, J. N. (2006). Communicant activeness, cognitive entrepreneurship, and a 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 *ProQuest Central Korea*, University of Maryland.
- Kim, J. N. (2011). Public segmentation using 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 Illustrating summation method and testing segmented public profiles. *PRism*, 8(2), 1-12.
- Kim, J. N., & Grunig, J. E. (2011). Problem solving and communicative action: A 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 *Journal of Communication*, 61(1), 120-149.
- Kim, J. N., Grunig, J. E., & Ni, L. (2010). Reconceptualizing the communicative action of publics: Acquisition, selection, and transmission of information in problematic sit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ategic Communication*, 4(2), 126-154.
- Kim, J. N., Ni, L., Kim, S. H., & Kim, J. R. (2012). What makes people hot? Applying the 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 to hot-issue public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24(2), 144-164.
- Kim, J. N., Park, N. I., & Kim, S. J. (2014). Building further on the situational theory of publics theoretical evolution to 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 and future research. *Journal of Public Relations*, 18(1), 330-366.
- Kim, J., Kim, J., Kim, K., & Kim, J. (2007). Influences of level of alcohol consumption and motives for drinking on drinking permissivenes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4(3), 382-390.
- Kim, S., & Sung, M. (2011). The effects of the perception of an online risk and prior knowledge on public's communication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3(4), 528-567.
- Kim, Y. (2021, February 21). Uptight rules for 'liquor advertising'...ban on product promotion. *Yonhap News Agency*.
- Lee, H. (2020, January 21). Liquor advertisement regulation strengthens...advance legislation notice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news Today*.
- Lee, J. (2010). *The study on drinking behaviors and public perception of problem drinking*. The Korean Addiction Research Foundation.
- Lee, M. (1993). Psychosocial factors for drink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2(1), 165-179.
- Lee, S., & Jung, E. (2012). Examining college students' problem drinking intention and problem drinking preventing factors: Focusing 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volvement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6(2), 379-404.
- Lee, S., & Rhee, Y. (2020). Issue recognition and communicative behavior of online public on a social issue: An application of the 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 on nationwide civil boycott of Japanese good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6), 326-341.
- Lim, H., Won, J., & Lee, H. (2018). The effects of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social drinking and solitary drink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alcohol identity. *Alcohol & Health Behavior Research*, 19(1), 33-42.
- Major, A. M. (1993). Environmental concern and situational communication theory: Implications for communicating with environmental public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5, 251-268.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7, December 21). [Press release]. <https://url.kr/6x4ahn>
- Moon, J., Noh, S., Youn, Y., Kim, Y., Kang, E., & Choo, J. (2021). University freshmen's problem

- drinking: Its individual- and family-level factors.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21(3), 92-100.
- Noh, I., Seo, M., & Kim, Y. (1997). Socio-economic cost of drinking and policy issu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Mason, W. A., Stevens, A. L., & Fleming, C. B. (2020). A systematic review of research on adolescent solitary alcohol and marijuana use in the United States. *Addiction*, 115(1), 19-31.
- Oei, T. P., & Burrow, T. (2000). Alcohol expectancy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 test of specificity theory. *Addictive Behaviors*, 25(4), 499-507.
- Oei, T. P., & Morawska, A. (2004). A cognitive model of binge drinking: The influence of alcohol expectancies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ddictive Behaviors*, 29(1), 159-179.
- Oei, T. P., Fergusson, S., & Lee, N. K. (1998). The differential role of alcohol expectancies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in problem and nonproblem drinker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9(6), 704-711.
- Park, G., & Choi, S. (2015). Effect of self-efficacy promoting reducing alcohol program on drinking related knowledge, drinking outcome expectancy and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 of wome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9), 364-373.
- Park, H. S., Cho, M. H., Cho, G. Y., & Kim, D. H. (2011). A comparison of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mental health between two groups of Korea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1), 110-119.
- Park, J. S. (2000).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problem drinking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6(4), 393-413.
- Park, N., & Sung, D. (2017). Factors influencing communicative action on donation behavior: Based on the extended 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3), 238-252.
- Park, Y., Oh, Y., & Yang, Y. (2019). An analysis of solitary drinker's general drinking behaviour and solitary drinking behaviour. *Alcohol and Health Behavior Research*, 20(1), 25-37.
- Rehm, J., Ashley, M. J., Room, R., Single, E., Bondy, S., Ferrence, R., & Giesbrecht, N. (1996). On the emerging paradigm of drinking patterns and their social and health consequences. *Addiction*, 91(11), 1615-1621.
- Sha, B. L. (2006). Cultural identity in the segmentation of publics: An emerging theory of intercultural public relation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8(1), 45-65.
- Shen, H., Xu, J., & Wang, Y. (2019). Applying 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 in cancer information seeking: A cross-sectional analysis of 2014 HINTS survey.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4(2), 165-173.
- Shim, S. W., Lee, J. W., & Sohn, Y. K. (2009). An approach on drinking reduction campaign strategic establishment of Korean women's college students: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1(1), 204-247.
- Standerwick, K., Davies, C., & Tucker, L. (2007). Binge drinking, sexual behaviour and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in the UK. *International Journal of STD & AIDS*, 18(12), 810-813.
- Standridge, J. B., Zylstra, R. G., & Adams, S. M. (2004). Alcohol consumption: An overview of benefits and risks. *Southern Medical Journal*, 97(7), 664-672.
- Univ Tomorrow Research Laboratory for Twenties. (2019, May 7). *10-year trend of drink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https://url.kr/yokjwp>
- Yang, N. (2010). Understanding college students' drinking problem by sex and drinking level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4), 1707-1727.

Yang, S., & Suh, K.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on impulsivity and problematic drinking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2), 277-295.

Yoo, J. (2021, December 5). Permission vs Side effects such as teenager purchase. *Segye Ilbo*.

Yoon, H. (2021, November 29). Drinking prevention education for high school seniors. *Dong-A Ilbo*.



The Perception and Communic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on Problem Drinking^{*}

•Gyu-won Bae

M.A., Department of Advertising and PR, Chung-Ang University

•Minjung Sung^{**}

Professor, Department of Advertising and PR, Chung-Ang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examined college students' issue perception of and communication behaviors on problem drinking based on the 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 (STOPS). A survey of 119 respondents explored the influence of perceptual, cognitive, and motivational antecedents of information behaviors. The results suggest students' problem recognition, involvement recognition and constraint recognition influenced situational motivation in problem solving, which affected communicative action. However, referent criterion, which was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partially affected communicative action.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es are discussed.

Keywords: Problem drinking, Communication behavior, 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 Situational theory of publics, Self-efficacy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hung-Ang University Research Scholarship Grants in 2020.

^{**}Corresponding author (mjsung@cau.ac.kr)